

나눔터



퍼낸날 : 1992년 3월 1일/퍼낸곳 : 한국성폭력상담소(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주소 :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우.137-600)/전화 : 02)522-1042/계간 발행



성폭력 예방을 위한 호신술 특강

2월 29일 (토) 16:30 - 17:30

성폭력 예방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기간중 있었던 호신술 특강
(사진제공 : 여성신문)

차 례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2

컬럼...5

인물탐방...6

연재기획 : 강간, 바로 압시다·데이트 강간...7

기획기사 : 아시아 여성들, 성폭력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8

호신술을 배우시다...12

나눔터 애깃글...13

논단 : 성의 역사 ③...14

지상상담 : 근친강간...15

알림판...16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16

2월 20일 현재 상담 1천5백여건

어린이 성폭행 추방을 위한 한마당 성황리에 마쳐

1991년 11월 23일 계몽문화센터 아트홀에서 11월25일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기념하고, 어린이 성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어린이 성폭행 추방을 위한 한마당〉을 열었다.

먼저 1부에서는 최영애 본상담소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필화 교수(이대, 여성학)의 ‘실상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어린이 성폭행에 대한 실태와 원인 분석이 있었다. 그뒤 본 상담소 상담원들이 준비한 성폭력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성폭력에 대한 공개토론, 질의 응답으로 1부 순서를 마쳤다. 2부에서는 다섯등이가 흥겨운 노래마당을 벌였으며, 상담소의 상담원과 예비상담원으로 이루어진 연극팀이 성폭력 예방극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서울시경 민원실의 호신술 시범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모두 끝맺었다 *



〈표1〉 상담 유형 분류 (1991. 12. 31 현재)

피해유형	가해자분류		피해자			소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강간 447 (34.9%)	아는 사람 (314)	근친	11	15	31	57(12.8%)
		친척	10	8	14	32(7.2%)
		이웃	19	15	31	65(14.5%)
		선배·친구	22	9		31(6.9%)
		데이트	21	4		25(5.6%)
		직장	77	1		78(17.4%)
		선생님	3	3	3	9(2.0%)
		기타	10		7	17(3.8%)
	모르는 사람(133)		56	37	40	133(29.8%)
윤간 48	(3.8%)	25	22	1	48(3.8%)	
강간미수 12 (0.9%)	아는 사람	3	1	1	5(41.7%)	
	모르는 사람	6		1	7(58.3%)	
혼인빙자간음 52	(4.1%)	52			52(4.1%)	
성추행 113(8.8%)	아는 사람 (88)	근친		6	13	19(16.8%)
		친척	5	3	6	14(12.4%)
		이웃	5	4	30	39(34.5%)
		선배·친구	1	3	4	8(7.1%)
		직장	5	3		8(7.1%)
		선생님				
	가해자 미상					2
모르는 사람		8	6	11	25(22.1%)	
재상담 277	(21.7%)	221	23	33	277(21.7%)	
기타 320(25.2%)	성문제	33	1	4	38(11.9%)	
	장난전화	16	5		21(6.6%)	
	아내 구타 및 의처증	8			8(2.5%)	
	법률상담	175	17	3	195(60.9%)	
	협박·위협·납치	9			9(2.8%)	
	기타	47	2		49(15.3%)	
남성피해 5(0.39%)	아는 사람	3		1	4(80.0%)	
	모르는 사람			1	1(20.0%)	
총계		854	188	237	1279	

어린이 성폭행, 전체의 31.1%

작년 4월13일 개소 이후 1992년 2월 20일 현재 1천5백63건의 상담을 받았다.

〈표1〉의 12월 말까지 상담 통계를 보면, 성폭행이(강간, 윤간, 성추행, 강간미수 재상담 포함) 902건으로 전체 상담의 70.5%를 차지하고 있다. 강간이 495건, 강간미수를 포함한 성추행이 125건, 혼인빙자간음이 52건, 재상담이 277건, 그리고 기타가 320건이다.

이와같은 많은 상담건수도 놀랍지만 각 사례마다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의 상담사례 중 어린이가 성폭행 피해자(강간, 강간미수, 윤간, 성추행) 전체의 31.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그림 1). 특히 근친에 의한 피해가 12.8%를 차지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그림2)

〈그림3〉을 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70.2%를 넘고 있다. 이를 통해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한적한 곳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다는 일반적인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귀가시간 규제 등 개인의 몸단속 차원에서의 대책은 너무 미비해 실제적인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동안 상담에 대한 후속활동으로 재상담, 면접상담을 통해 심리적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정신과, 산부인과적인 처치도 자문위원 선생님들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절차 안내 및 담당 검사와 판사에게 진정서를 보내는 등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